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과 수행여부에 대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보호자의 인식 비교

조명희 · 김계하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Perceptions of Adequacy and Job Performance of Nurse Assistant Nursing Jobs according to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ssistants in Geriatric Hospitals, and Caregivers

Cho, Myung Hee · Kim, Kye Ha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adequacy and job performance of the nurse assistants' nursing job as evaluated by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ssistants in geriatric hospitals, and by caregivers from the same hospitals.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62 registered nurses, 57 nurse assistants, and 64 patient caregivers who completed a measurement scale on the job of nurse assista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ANOVA by IBM SPSS/WIN program version 21.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items in perception of adequacy of nurse assistants' nursing job of among the three group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nurse assistants' job performance among the three groups. **Conclusion:** For nurse assistants in geriatric hospital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eeds to develop an appropriate job practice guideline. In addition, there should be periodic courses of re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nurse assistants.

Key Words: Nurses, Nurses Aides, Caregivers, Work performance, Percep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간호사 면허자의 누적 수는 295,496명, 간호조무사 자격자의 누적 수는 521,608명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는 18,961명, 간호조무사는 25,734명으로[2]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에 비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부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의거하여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요양병원에서는 대부분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으므로[3]

주요어: 간호조무사, 간호사, 환자보호자, 업무수행, 인식

Corresponding author: Kim, Kye Ha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Korea.
Tel: +82-62-230-6326, Fax: +82-62-232-9213, E-mail: kyejakim@naver.com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osun University.

Received: Jul 12, 2016 | **Revised:** Aug 19, 2016 | **Accepted:** Sep 5,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앞으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간호조무사 비율의 증가로 인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보고 있거나 상당수의 간호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고 있어[4,5] 요양병원의 간호서비스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운영되어질 형편에 놓여 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그동안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의료법 제 2조의 2) 점점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7년부터는 의료법 제 80조 2에 의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병원급에서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다수 활용을 하는 현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만족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3].

지금까지 간호계에서는 간호업무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전반적 간호업무 내용을 개발하여 왔으며, 분만실이나 수술실과 같이 분야별로도 간호업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간호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6-8].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 간호업무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없어 간호조무사가 80% 이상이 검사준비, 소독물품 관리, 좌약투여, 채혈, 구강영양, 관장 등의 88개 간호행위를 다양한 범위내에서 간호사와 함께 수행하고 있고, 위루영양, 위관영양, 흡인, 근육주사, 정맥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Kim과 Lee[10]는 우리나라의 의료법 조항은 간호행위를 비롯하여 여타의 업무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되어 혼란과 예측불가능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하였다. 의료사고는 간호사의 경우 본인의 간호과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욕창발생, 상태확인 지연, 낙상, 투약오류, 수혈오류 등에서 일어나는데[11], 간호조무사는 주사 등의 행위와 같이 의사의 업무 위임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이다[5]. 독일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도 공중위생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간호사의 책임 하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2]. 업무위임은 결국 간호사의 책임이 따르므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과 전문적 간호중재의 경우는 위임이 부적절하다[13]. 따라서, 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간호조무

사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여부에 따른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 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인식이 조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실태에 대한 조사들은 꾸준히 수행되어져 왔으나[9,14]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는 간호업무에 대한 인식조사는 거의 없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요양병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 환자들의 경우는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써 병원을 선택할 때 환자 본인의 의견보다는 주보호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15]. 보호자들은 노인의 질병수가 많고, 부양 관련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노인에게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이다[15]. 그러나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당사자나 가족은 간호수행에 대해서 청결하지 않은 목욕서비스와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것, 적절한 시기에 기저귀 교환이나 린넨 또는 환의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 사전동의 없이 억제대를 적용함 등의 서비스 미흡성을 지적하였다[16].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재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지, 또한 실제 간호업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관점에서 간호사의 간호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있지만[17,18],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업무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어떤 관점으로 평가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질적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의 미흡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고한 연구[16]가 있을 뿐이다. 즉,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간호업무의 주체자인 간호사와 이들의 간호를 제공받는 환자 및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업무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환자보호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간호업무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인식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지침 개발과 간호보조 인력으로써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에 대한 적절성과 수행여부를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보호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보호자가 인식하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에 대해 파악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보호자가 인식하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수행여부에 대해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과 수행여부에 대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보호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200명 이상 요양병원 6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62명과 간호조무사 57명 및 환자보호자 64명의 총 183명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둘째, 현재 요양병원에 입사하여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셋째, 요양병원에 현재 가족이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를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25, 집단수=3, 검정력 .80을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가 159명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히 만족되었다.

3. 연구도구

1) 간호업무 적절성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Back과 Kim[14]이 개발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진료보조업무 6문항, 단순업무 5문항, 간호보조업무 29문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적절

하지 않음’ 1점부터 ‘매우 적절함’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40점에서 최고 1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조무사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다.

2) 업무수행여부에 대한 인식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Back과 Kim[14]이 개발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도구 40문항을 사용하였고 원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각 문항은 ‘수행한다’ 1점과 ‘수행하지 않는다’ 0점으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C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search Board, IRB)의 승인(2-1041055-AB-N-01-2015-0039)을 받았다.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IRB 승인 후인 2015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12월까지였다. 연구자가 자료수집에 앞서 먼저 G시와 J도에 소재한 200명 이상 규모의 요양병원 6곳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간호부장 및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및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 내용 및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대상자의 신분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무기명을 유지하고 연구가 완료됨과 동시에 폐기처분할 것임을 알렸다. 연구수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간호사 75명, 간호조무사 75명, 보호자 7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며, 설문에 응해 준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하여 216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여 자료처리가 어려운 33부를 제외한 총 18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보호자가 인식하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과 업무수행여부에 대한 차이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사는 모두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9.2세였으며 40세 미만이 53.2%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66.1%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66.1%가 기혼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1.6%였으며, 현 요양병원의 근무년수는 평균 26.9개월로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이 46.8%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94.9개월로 36개월 이상이 5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2.3%의 분포를 보였으며, 3교대 근무형태가 54.8%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평균 급여는 200만원 이상이 51.6%,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병상수는 400병상 이상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중인 병원의 83.9%가 1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표준업무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8.4%였다.

간호조무사의 성별은 여성이 98.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49.2세였으며 50세 이상이 47.4%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59.6%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87.7%가 기혼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71.9%였고, 현 요양병원의 근무년수는 평균 31.8개월로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이 49.1%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56.3개월로 36개월 이상이 68.4%인 것으로 나타났다. 3교대 근무형태가 80.7%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평균 급여는 150만원 미만이 64.9%,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병상수는 200~300병상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다. 근무 중인 병원의 75.4%가 1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표준업무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6.5%였다(Table 1).

환자보호자의 경우 여성이 8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48.1세로 40대가 42.2%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이 43.8%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81.2%가 기혼이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5.6%로 나타났

다. 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기간은 평균 19.1개월로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이 42.2%를 차지하였으며, 환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56.3%로 가장 많았다. 환자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200~300병상 미만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가 입원했던 요양병원 중 40.6%가 1등급 인증을 받은 곳으로 알고 있었고, 병원을 결정한 요인에는 주변인의 소개가 3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다수(87.5%)의 환자보호자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르다고 인지하고 있었다(Table 2).

2.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정도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Table 3과 같다. 간호사의 경우는 병실 적출물 상자 만들고 배출하기(3.34 ± 0.62) 문항에서 인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 병실 정리정돈하기(3.31 ± 0.58)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환자보호자는 간호사 보조하기(3.34 ± 0.54)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적절하다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침상만들기(3.28 ± 0.51)였다. 간호조무사가 인식하는 간호업무 적절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혈압측정하기(3.35 ± 0.48)였고, 다음은 체온·맥박·호흡 측정하기(3.33 ± 0.47)였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적절성으로 인식한 정도가 낮은 문항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모두 의사회진 따라가기(2.40 ± 0.84 , 2.10 ± 0.90)와 위관 삽입하기(2.46 ± 0.78 , 2.24 ± 0.86)였다. 환자보호자는 위관삽입하기(2.39 ± 0.88)와 소변줄 끼기(2.39 ± 0.95) 문항에서 인식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총합으로 볼 때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15$, $p=.862$). 그러나 각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사후 검증한 결과, 침상만들기, 병실 정리정돈하기, 린넨 정리하기, 환자의 양치질 및 세면 돕기, 침상에서의 배변 돕기, 환자 목욕시키기 문항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나 환자보호자에 비해 업무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병실적출물 상자 만들고 배출하기, 환자의 옷 갈아입히기, 침상에서의 배뇨 돕기 문항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에 비해 업무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낮았다.

의사회진 따라가기 문항은 간호사가 환자보호자보다 인식 점수가 낮았고, 욕창 및 상처 드레싱 하기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낮았으며, 경구약 등 약물 준비하기 문항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환자보호자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환자보호자는 주사약 준비하기, 근육주사 놓기, 정맥주사 놓기, 채혈하기 업무에 대해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and Nurse Assistants

(N=1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e (n=62)		Nurse assistant (n=57)	
		n (%)	M±SD	n (%)	M±SD
Gender	Male	0 (0.0)		1 (1.8)	
	Female	62 (100.0)		56 (98.2)	
Age (year)	< 40	33 (53.2)	39.2±9.2	5 (8.8)	49.2±8.0
	40~49	19 (30.7)		25 (43.8)	
	≥ 50	10 (16.1)		27 (47.4)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0 (0.0)		34 (59.6)	
	College	41 (66.2)		16 (28.1)	
	Bachelor's degree	18 (29.0)		7 (12.3)	
	Master's degree	3 (4.8)		0 (0.0)	
Marital status	Married	41 (66.1)		50 (87.7)	
	Others	21 (33.9)		7 (12.3)	
Length of career in the present hospital (month)	< 12	15 (24.2)	26.9±22.3	10 (17.6)	31.8±21.9
	12~< 36	29 (46.8)		28 (49.1)	
	≥ 36	18 (29.0)		19 (33.3)	
Length of career as a nurse assistant or nurse (month)	< 12	15 (24.2)	94.9±111.0	7 (12.3)	56.3±43.5
	12~< 36	14 (22.6)		11 (19.3)	
	≥ 36	33 (53.2)		39 (68.4)	
Position	Staff nurse	51 (82.3)		-	
	Charger nurse	5 (8.1)			
	Head nurse	6 (9.6)			
Type of working	2 rotation	7 (11.3)		2 (3.5)	
	3 rotation	34 (54.8)		46 (80.7)	
	Fixed duty	21 (33.9)		9 (15.8)	
Income (10,000 won/month)	< 150	1 (1.6)		37 (64.9)	
	150~< 200	29 (46.8)		20 (35.1)	
	≥ 200	32 (51.6)		0 (0.0)	
Number of bed	200~< 300	21 (33.9)		24 (42.1)	
	300~< 400	19 (30.6)		15 (26.3)	
	≥ 400	22 (35.5)		18 (31.6)	
Grade of long-term care hospital	1	52 (83.9)		43 (75.4)	
	2	10 (16.1)		14 (24.6)	
Existence of standard guide for nursing job	Yes	61 (98.4)		55 (96.5)	
	I don't know	1 (1.6)		2 (3.5)	

당측정하기 문항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인식점수가 간호조무사의 인식 점수보다 낮았다.

3.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는 Table 4와 같다.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들이 체온, 맥박, 호흡 측정하기, 혈압측정하기, 약 나누어 주기, 산소 연결하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모두 응답하였다. 환자보호자는 간호조무사가 간

호사 보조하기(0.95±0.21)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간호조무사들은 채혈 및 검사물 병리실로 운반하기, 체온, 맥박, 호흡 측정하기, 혈압측정하기, 관장하기, 욕창 및 상처 드레싱 하기, 드레싱 후 물품 세척하고 소독하기, 혈당 측정하기, 주사약 준비하기, 근육주사 놓기, 정맥주사 놓기, 약 나누어 주기, 채혈하기, 검사물 채집하기, 위관 영양액 주입하기, 간호사 보조하기 업무에서 모두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간호사(0.31±0.46), 간호조무사(0.39±0.49), 환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

(N=6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9 (14.1)	
	Female	55 (85.9)	
Age (year)	< 40	11 (17.2)	48.1±11.5
	40~49	27 (42.2)	
	≥ 50	26 (40.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24 (37.5)	
	College	12 (18.7)	
	Bachelor's degree	28 (43.8)	
Marital status	Married	52 (81.2)	
	Others	12 (18.8)	
Length of hospitalization in long-term care hospital (month)	< 12	23 (35.9)	19.1±17.5
	12~< 36	27 (42.2)	
	≥ 36	14 (21.9)	
Relationship with a patient	Spouse	2 (3.1)	
	Adult children	36 (56.3)	
	Sibling	4 (6.3)	
	Daughter-in-law	11 (17.2)	
	Others	11 (17.2)	
Number of bed	200~< 300	23 (35.9)	
	300~< 400	21 (32.9)	
	≥ 400	10 (15.6)	
	I don't know	10 (15.6)	
Grade of long-term care hospital	1	26 (40.6)	
	2	9 (14.1)	
	3	7 (10.9)	
	I don't know	22 (34.4)	
Determinants of hospital choice	Image of hospital	17 (26.6)	
	Distance from home	15 (23.4)	
	Introduction of an acquaintance	22 (34.4)	
	Others	10 (15.6)	
Recognition of differences between nurse assistants and nurses	Yes	56 (87.5)	
	I don't know	8 (12.5)	

자보호자(0.53±0.50) 모두가 의사회진 따라가기였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환자보호자가 인식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여부를 총합으로 비교한 결과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33, p=.001$). 각 문항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채혈 및 검사물 병리실로 운반하기, 혈압측정하기, 환자의 옷 갈아입히기, 환자 목욕시키기, 관장하기, 욕창 및 상처 드레싱하기, 혈당 측정하기, 주사약 준비하기, 근육주사 놓기, 정맥주사 놓기, 채혈하기, 검사물 채집하기, 위관 영양액 주입하기, 소변줄 꽂기, 무의식 환자 구강간호하기, 비강흡인하기, EKG 부착하기, 환자 임종 후 정리정돈하기, 호흡기 치료 도와주기, 산소 연결하기에서 환자보호자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에 비해 업무수행여부에 대한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섭취량, 배설량 측정하기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업무수행여부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았고, 의사회진 따라가기는 간호사가 환자보호자에 비해 인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의 업무 적절성과 업무수행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는 ‘병실 적출물 상자 만들고 배출하기’ 업무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Table 3. Perceptions on Adequacy of Nursing Job of Nurse Assistants

(N=183)

Job	Nurse ^b (n=62)	Nurse assistant ^a (n=57)	Caregiver ^c (n=64)	F	Scheffé	p
	M±SD	M±SD	M±SD			
1. Bed-making	3.27±0.51	2.65±0.76	3.28±0.51	21.07	a < b, c	< .001
2. To transport the blood sample, urine, stool, or sputum to the clinical laboratory	3.29±0.58	3.11±0.40	3.19±0.73	1.44		.239
3. To make and throw away box for a patient's discharge	3.34±0.62	2.96±0.56	3.22±0.62	5.79	a < b	.004
4. Cleansing ward	3.31±0.58	2.95±0.51	3.25±0.61	6.58	a < b, c	.002
5. To arrange linen	3.26±0.57	2.79±0.70	3.20±0.59	9.96	a < b, c	< .001
6. To assist doctors	2.48±0.82	2.54±0.73	2.66±0.76	0.80		.449
7. To guide patients	3.24±0.46	3.11±0.55	3.17±0.63	0.90		.410
8. Temperature, pulse, respiration check	3.27±0.54	3.33±0.47	3.16±0.67	1.50		.225
9. Blood pressure check	3.27±0.54	3.35±0.48	3.12±0.70	2.33		.100
10. To take patients to the outpatient laboratory, radiology, etc.	3.29±0.52	3.07±0.70	3.14±0.61	2.01		.138
11. To assist doctors on their rounds	2.10±0.90	2.40±0.84	2.61±0.88	5.44	b < c	.005
12. To help to brush a patient's teeth and wash his or her face	3.11±0.57	2.68±0.78	3.06±0.79	6.16	a < b, c	.003
13. To help patients change their costume	3.18±0.46	2.84±0.67	3.09±0.81	4.03	a < b	.019
14. To help Urination in bed	3.05±0.61	2.72±0.79	2.97±0.73	3.38	a < b	.036
15. To help defecation in bed	3.00±0.62	2.63±0.77	2.97±0.73	4.84	a < b, c	.009
16. To help patients bathe	2.90±0.64	2.54±0.78	2.89±0.71	4.80	a < b, c	.009
17. Intake and output check	2.82±0.75	3.05±0.44	3.03±0.61	2.55		.081
18. To conduct an enema	2.98±0.58	3.09±0.34	2.94±0.58	1.29		.279
19. Bedsore and wound dressing	2.76±0.78	3.11±0.61	2.81±0.75	3.91	a > b	.022
20. Cleaning and disinfecting instruments after dressing	3.16±0.57	3.26±0.48	3.17±0.63	0.57		.568
21. Blood sugar check	3.18±0.58	3.26±0.48	2.95±0.70	4.36	a > c	.014
22. To prepare an Injection	2.81±0.76	3.26±0.44	2.80±0.76	9.06	a, b > c	< .001
23. To inject a drug into a patients' muscle	2.69±0.84	3.16±0.59	2.61±0.84	8.60	a, b > c	< .001
24. To inject a drug into a patients' vein	2.60±0.85	3.16±0.52	2.50±0.85	12.60	a, b > c	< .001
25. To prepare oral medication	2.76±0.76	3.23±0.46	2.88±0.76	7.52	b < a, c	.001
26. To administrate some drug to the patient	3.00±0.62	3.23±0.46	3.06±0.63	2.38		.095
27. Blood sampling	2.69±0.82	3.11±0.55	2.56±0.87	8.06	a, b > c	< .001
28. To collect stool, urine, etc.	2.82±0.73	3.11±0.52	2.86±0.71	3.12		.047
29. Levin tube insertion	2.24±0.86	2.46±0.78	2.39±0.88	1.01		.365
30. Levin tube feeding	2.87±0.66	2.96±0.53	2.69±0.79	2.65		.073
31. Foley catheter insertion	2.58±0.82	2.67±0.74	2.39±0.95	1.71		.185
32. Oral care for unconscious patients	3.02±0.46	2.98±0.44	2.81±0.66	2.61		.077
33. Personal hygiene care (ex. Clipping fingernails, toenails)	3.06±0.50	2.93±0.53	2.97±0.66	0.88		.417
34. Nasopharyngeal suction	2.92±0.52	2.84±0.64	2.72±0.76	1.51		.224
35. Apply an EKG	2.81±0.69	2.93±0.45	2.73±0.74	1.39		.253
36. To help to take ROM exercise	2.77±0.66	2.54±0.80	2.86±0.68	3.07		.049
37. Bed cleaning after a patient's death	3.15±0.47	2.91±0.57	3.09±0.55	3.07		.049
38. To help respiration treatment (ex. an oxygen inhaler)	3.05±0.45	3.02±0.58	3.00±0.66	0.11		.893
39. Apply O2	3.02±0.49	3.07±0.49	2.89±0.71	1.54		.218
40. To assist nurses	3.27±0.60	3.14±0.35	3.34±0.54	2.41		.093
Total	118.40±14.45	118.15±12.53	117.04±16.98	0.15		.862

Table 4. Perceptions on Job Performance of Nursing Job of Nurse Assistants

(N=183)

Job	Nurse ^b (n=62)	Nurse assistant ^a (n=57)	Caregiver ^c (n=64)	F	Scheffé	p
	M±SD	M±SD	M±SD			
1. Bed-making	0.90±0.29	0.84±0.36	0.92±0.27	1.06		.350
2. To transport the blood sample, urine, stool, or sputum to the clinical laboratory	0.98±0.12	1.00±0.00	0.89±0.31	5.39	a, b > c	.005
3. To make and throw away box for a patient's discharge	0.95±0.21	0.93±0.25	0.89±0.31	0.85		.431
4. Cleansing ward	0.94±0.24	0.98±0.13	0.94±0.24	0.88		.416
5. To arrange linen	0.81±0.39	0.86±0.35	0.91±0.29	1.29		.279
6. To assist doctors	0.58±0.49	0.68±0.46	0.75±0.43	2.09		.127
7. To guide patients	0.92±0.27	0.98±0.13	0.92±0.27	1.33		.268
8. Temperature, pulse, respiration check	1.00±0.00	1.00±0.00	0.94±0.24	3.90		.022
9. Blood pressure check	1.00±0.00	1.00±0.00	0.92±0.27	4.96	a, b > c	.008
10. To take patients to the outpatient laboratory, radiology, etc.	0.95±0.21	0.89±0.31	0.89±0.31	0.89		.411
11. To assist doctors on their rounds	0.31±0.46	0.39±0.49	0.53±0.50	3.46	b < c	.034
12. To help to brush a patient's teeth and wash his or her face	0.77±0.42	0.86±0.35	0.70±0.46	2.14		.121
13. To help patients change their costume	0.94±0.24	0.95±0.22	0.77±0.42	6.41	a, b > c	.002
14. To help Urination in bed	0.82±0.38	0.84±0.36	0.75±0.43	0.91		.403
15. To help defecation in bed	0.81±0.39	0.77±0.42	0.73±0.44	0.46		.633
16. To help patients bathe	0.90±0.29	0.84±0.36	0.64±0.48	7.71	a, b > c	.001
17. Intake and output check	0.77±0.42	0.96±0.18	0.86±0.35	4.75	a > b	.010
18. To conduct an enema	0.97±0.17	1.00±0.00	0.91±0.29	3.39	a > c	.036
19. Bed sore and wound dressing	0.94±0.24	1.00±0.00	0.81±0.39	7.40	a, b > c	.001
20. Cleaning and disinfecting instruments after dressing	0.97±0.17	1.00±0.00	0.92±0.27	2.58		.079
21. Blood sugar check	0.98±0.12	1.00±0.00	0.91±0.29	4.36	a > c	.014
22. To prepare an Injection	0.97±0.17	1.00±0.00	0.91±0.29	3.39	a > c	.036
23. To inject a drug into a patients' muscle	0.97±0.17	1.00±0.00	0.78±0.41	12.08	a, b > c	< .001
24. To inject a drug into a patients' vein	0.95±0.21	1.00±0.00	0.78±0.41	10.63	a, b > c	< .001
25. To prepare oral medication	0.90±0.29	0.96±0.18	0.86±0.35	2.01		.137
26. To administrate some drug to the patient	1.00±0.00	1.00±0.00	0.94±0.24	3.90		.022
27. Blood sampling	0.97±0.17	1.00±0.00	0.70±0.46	19.39	a, b > c	< .001
28. To collect stool, urine, etc.	0.97±0.17	1.00±0.00	0.81±0.39	9.58	a, b > c	< .001
29. Levin tube insertion	0.66±0.47	0.70±0.46	0.58±0.49	1.06		.350
30. Levin tube feeding	0.95±0.21	1.00±0.00	0.75±0.43	13.16	a, b > c	< .001
31. Foley catheter insertion	0.89±0.31	0.91±0.28	0.67±0.47	7.85	a, b > c	.001
32. Oral care for unconscious patients	0.97±0.17	0.93±0.25	0.84±0.36	3.25	b > c	.041
33. Personal hygiene care (ex. Clipping fingernails, toenails)	0.94±0.24	0.91±0.28	0.86±0.35	1.08		.343
34. Nasopharyngeal suction	0.98±0.12	0.91±0.28	0.78±0.41	7.27	b > c	.001
35. Apply an EKG	0.90±0.29	0.95±0.22	0.78±0.41	4.27	a > c	.015
36. To help to take ROM exercise	0.69±0.46	0.70±0.46	0.72±0.45	0.05		.952
37. Bed cleaning after a patient's death	0.98±0.12	0.96±0.18	0.88±0.33	3.86	b > c	.023
38. To help respiration treatment (ex. an oxygen inhaler)	0.97±0.17	0.95±0.25	0.84±0.36	3.78	b > c	.025
39. Apply O2	1.00±0.00	0.98±0.13	0.83±0.38	10.00	a, b > c	< .001
40. To assist nurses	0.97±0.17	1.00±0.00	0.95±0.21	1.29		.279
Total	35.83±4.26	36.66±3.68	32.76±8.48	7.33	a, b > c	.001

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4]에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이 업무를 75.9%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상적 업무이고, 다른 업무들에 비해 그 결과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적절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조무사는 ‘혈압측정하기’(3.35)를 본인들의 업무로 적절하다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체온, 맥박, 호흡 측정하기’(3.33)였다. 간호사의 경우에도 ‘혈압측정하기’와 ‘체온, 맥박, 호흡 측정하기’가 각각 3.27로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간호사가 활력징후측정을 중요도가 높은 간호업무로 인식하고 있어[19], 본 연구에서의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혈압측정하기’와 ‘체온, 맥박, 호흡 측정하기’를 간호조무사의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위생활동, 환자편의 제공, 환자상태 점검, 착복, 식사, 걸음 보조, 청소, 오염방지 등의 분야로 제한되어 있다[12]. 노인 환자의 활력징후는 건강상태에 따라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국외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활력징후 측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간호사의 책임 하에 이러한 업무에 대해 검증과 감독 과정이 따라야 하고 그 전에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업무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환자보호자는 ‘간호사 보조하기’를 적절한 업무라고 높게 인식하였다. 선행연구[14]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의 97.6%가 ‘간호사 보조하기’를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결과는 간호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이를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로 적절성을 낮게 인식한 문항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회진 따라가기’로 응답하였다. 회진 시에는 의사와 간호사 간에 환자에 대한 보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환자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회진 후에는 의사의 처방을 정확히 수행하고 기록하며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선행연구[9]에서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기록작성의 수행정도가 낮고, 간호사가 지시한 후에는 간호조무사들의 의약품 이해정도를 확인해야 하는 고충을 보고하였는데 간호조무사 당사자들 역시 ‘의사회진 따라가기’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적절하지 않음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환자보호자는 ‘위관삽입하기’를 간호조무사

의 업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위관삽입하기’는 대체로 의사가 주로 시술을 하는 행위로 위내로 정확히 삽입이 되어야 한다. 비위관이 폐로 들어가거나 정확히 위장으로 삽입이 되지 않았을 때 환자에게 기흉과 폐기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20]. 또한 간호사의 경우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나 장기요양보험방문간호사만이 주로 시술을 할 뿐[21] 급성기 병원에서는 간호사도 거의 시술을 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환자보호자들은 간호조무사의 행위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간호업무가 철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기관 차원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일부 업무들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욕창 및 상처 드레싱 하기’를 간호조무사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드레싱의 수행은 철저한 외과적 무균술과 감염관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욕창이나 상처는 위치와 상처크기, 욕창의 단계를 분류하는 등의 사정과 상처간호수행, 수행의 평가 및 정확한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22]. 그러나 현재 임상에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로 간호조무사는 수행은 하되 기록을 하지 않는 모순이 있어 업무수행자와 기록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외과적 무균술 및 감염관리는 수행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서 무균술 준수와 감독이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22]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업무 규정을 할 때는 단순히 인력부족 때문이라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각 직종에 맞는 업무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침상만들기’, ‘병실 적출물 상자 만들고 배출하기’, ‘병실 정리정돈하기’, ‘환자의 양치질 및 세면 돕기’, ‘환자의 옷 갈아입히기’, ‘침상에서의 배뇨 돕기’, ‘침상에서의 배변 돕기’, ‘환자 목욕시키기’ 문항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다른 두 집단보다 본인의 업무로 적절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침상만들기’나 ‘린넨 정리하기’ 등은 급성기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기관의 특성상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주로 환자의 침구를 교체하고 직접적인 신체수발을 수행하고 있어[23],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들이 본인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본인의 업무와 수행해야 할 업무 간에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추후 관심을 가져야할 연구 주제라고 사료된다. 반면, 환자보호자는 혈당측정하기, 주사약 준비하기, 근육주사 놓기, 정맥주사 놓기, 채혈하기 업무 문항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보다 낮았다. 환자보호자들은 침습적 간호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들은 경구약 투여나 간호보조업무보다 환자에게 비교적 위해성이 높은 것들이다. 침습적 간호행위가 환자에게 행해질 때 판단력, 지식, 기술의 정확성이 필요하고[10] 수행의 질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교육정도와 능력에 의해 달라지므로 침습적 간호행위에 대한 이해나 감정표현이 어려운 노인을 입원시켜놓은 환자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불안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침습적 간호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규정할 때는 이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간호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는 ‘체온·맥박·호흡 측정하기’, ‘혈압측정하기’, ‘약 나누어 주기’, ‘산소 연결하기’를 간호조무사가 실제 수행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활력징후는 가장 기본적인 간호업무로서 노인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화되므로 반드시 간호사의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간호에서 투약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는데 환자의 감염과 질병치료 및 회복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9]. 그런데 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에서 대부분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먼저 ‘욕창 및 상처 드레싱 하기’ 업무의 경우, 드레싱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 수행하게 되면 노인 대상자에게 쇠약과 건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24], 제때에 간호사에게 보고되지 않으면 욕창이 심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25]. 그러므로 항상 간호사나 의사에 의해서 욕창과 상처의 수준이 구분된 후, 간호조무사에게 드레싱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 및 추후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부득이 하다면 단순 드레싱으로 제한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관 영양액 주입하기’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대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14,26]. 요양병원에서 위관영양을 하는 노인대상자는 다수이며 간호사만이 수행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도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무조건 위임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사약 준비하기’, ‘근육주

사 놓기’, ‘정맥주사 놓기’, ‘채혈하기’들의 항목에서도 다른 연구들[9]과 같이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여부에 대한 인식이 높게 확인되었다. 급성기병원에서는 채혈이 의사나 간호사, 임상병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정맥혈 채혈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혈 부위나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간호조무사에게 업무수행을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 보조하기’를 대체로 수행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에서 대체 간호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간호사 보조하기’는 적절한 업무라고 판단된다. 다만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가 수행되어지고, 수행 후에는 정확한 보고까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환자보호자는 ‘간호사 보조하기’의 업무를 간호조무사들이 실제로 수행한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과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통계적 분석에서도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양치질 및 세면 돕기’, ‘환자의 옷 갈아입히기’, ‘침상에서의 배뇨 돕기’, ‘침상에서의 배변 돕기’, ‘환자 목욕시키기’에 대해 업무의 적절성 인식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도 간호사보다 낮았다. 이 문항들은 다른 업무 문항들에 비해 단순하고 복잡한 의료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들은 자신들의 업무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환자의 양치질 및 세면 돕기’, ‘환자의 옷 갈아입히기’, ‘침상에서의 배뇨 돕기’, ‘침상에서의 배변 돕기’, ‘환자 목욕시키기’의 문항은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에서 간호실습에 교육내용이 수록되어 있고[27], 간호조무사의 업무분석[14]에서도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에게 신체수발의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인해[22] 본인의 업무로서 수행하는 정도가 낮다고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환자에 대한 신체 간호 서비스는 피부상태와 관절의 움직임 등을 관찰하는 기회로서 중요한 간호중재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들이 간병인에게 업무를 위임하기에 앞서 노인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신체 간호 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환자보호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환자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주로 간병인에 의

한 처치행위를 목격하게 되며[16]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일일이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조사되어진 연구들도 많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과 업무 수행여부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환자보호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업무들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인식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환자보호자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환자보호자들은 간호조무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간호업무를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간호지식 향상과 업무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보수교육과 병원내의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이 아직은 법령화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실질적인 업무범위가 설정이 되어져야 하고, 간호업무를 위임하고 감독하는 간호사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상자만을 선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어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및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실태에 대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환자보호자의 간호업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에서 본 연구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적절성과 수행여부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인식정도까지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요양병원 간호조

무사의 간호업무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You SJ. Comparisons of the nursing workforce with Japan, and the U.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11(6):275-287.
2. Statistics Korea. Health insurance statistics (Nurses and other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06[cited 2016 August 15].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A&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1
3. Hospital Nurses Association. Status of hospital nurse staffing on 2014.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4.
4. Sim MR, Kim KH. Job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task performance among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ssista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0;16(4):446-454. <http://dx.doi.org/10.1111/jkana.2010.16.4.446>
5. Chang SO, Lee BS, Kim JI, Shin SR. A delphi study to elicit policies for nurse workforce based on patient saf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2):215-226. <http://dx.doi.org/10.1111/jkana.2014.20.2.215>
6. Park JH, Sung YH, Song MS, Cho JS, Sim WH. The classification of standard nursing activ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0;30(6):1411-1426.
7. Kwon SB, Cho KS, Park YS, Kim DO, Yi YJ, Lee EH. Analysis of nursing work of operation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8;14(1):72-84.
8. Kim HJ, Lim JS, Choi SM, Park SH, Park SH, An SE, et al. Analysis of activities and services of delivery room nurses based on DACUM techniqu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5;21(3):319-334.
9. Kim MH, Jeong CY. A survey of the nursing activities performed by nursing staff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2):940-951. <http://dx.doi.org/10.5762/KAIS.2014.15.2.940>
10. Kim ES, Lee HJ. Legal definition of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6;12(4):574-586.
11. Lee SY, Kim HJ.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structure of health care workers in hospitals to improve quality of medical service-Focused on nursing workers-. Health Improvement Report. Seoul: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2008 December.
12. Hwang NM, Kim DJ. An overview of the nursing systems of France and Germany. Health Welfare Policyforum. 2014;217:76-89.
13.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 and Neonatal Nur-

- ses. The role of 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nursing assistive personnel) in the care of women and newborns. *Nursing for Women's Health*. 2009;13(6):526-528.
14. Back SH, Kim KH. Comparison of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 assistants in general hospitals and long-term care hospitals.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2014; 8(1):1-10.
15. Park CJ. Determinants of long term care service types of family caregiv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5;70:31-51.
16. Kwon KJ, Park TJ, Lee SY. How does the long-term care hospital work? -Content analysis to conceptualize patient's family and personnel's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2015;16:101-122.
17. Park KM, Yang JH, Chang DM. The effects of hospital choice factor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8):375-388.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8.375>
18. Lee HJ, Kim JY, Kim SH.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selection attributes and reuse intention in long-term care hospital for elderly patient caregiver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015;20(4):50-61.
19. Park HT, Kim YA, Hwang HY.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nursing interventions perceived by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6;12(2):189-195.
20. Al Saif N, Hammodi A, Al-Azem MA, Al-Hubail R. Tension pneumothorax and subcutaneous emphysema complicating insertion of nasogastric tube. *Case Reports in Critical Care*. 2015;690742:1-4. <http://dx.doi.org/10.1155/2015/690742>
21. Oh EG, Lee HJ, Kim YK, Sung JH, Park YS, Yoo JY, et al. Current status of home visit programs: Activities and barriers of home care nursing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5;45(5):742-751.
<http://dx.doi.org/10.4040/jkan.2015.45.5.742>
22. Chang SO, Gil SY, Lee MH, Jin EH, Cha BK, Park CS, et al. *Basic nursing*. 3rd ed. Paju: Koonja.
23. Jung JY, Yun SY. Elder care related knowledge, attitudes, nursing practice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in geriatric hospital health personne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2;14(3):233-241.
24. Siem C, Rantz M. Certified nurse aide scope of practic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2015;16(1):6.
<http://dx.doi.org/10.1016/j.jamda.2014.10.009>
25. Juthberg C, Sundin K.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ssistants' lived experience of troubled conscience in their work in elderly care -A phenomenological hermeneutic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0;47(1):20-29.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9.06.001>
26. Yang PH, Hung CH, Chen YC. The impact of three nursing staffing models on nursing outcom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5;71(8):1847-1856.
<http://dx.doi.org/10.1111/jan.12643>
27. Ko IS. *Basic skills for nursing practice*. Seoul: Eunha Publishing Co.; 2010.